

# 혜택도 데이터도 듬뿍... 1020세대 겨냥한 '0라이프'

(영)



'0라이프' 6가지 혜택 무료로 제공  
기존 방식 넘어선 실질적 혜택 마련

'1020세대의 마음을 읽은 이동통신사는 어딜까.'

이동통신사가 젊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브랜드를 내놓고 구미에 맞는 다양한 혜택을 출시하고 있다. 특히 지불 여력이 없어 데이터에 대한 욕망이 잔존한 10대와 20대 초반 고객을 겨냥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를 나눠 쓰는 활용 방안을 넓히고 자주 쓰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공짜로 쓸 수 있게 하는 제로레이팅을 도입했다.

SK텔레콤은 4월 서울 을지로 삼화타워에서 영라이프 혜택 출시 간담회를 열고 이날부터 총 6개의 '0(영)라이프' 혜택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날 KT도 만 24세 이하 고객을 겨냥해 콘텐츠 반값 할인 혜택과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와 함께하는 콜라보 굿즈 프로그램을 공개한 바 있다.

손인혁 SK텔레콤 MNO사업지원그룹 PL은 "취업이나 경제활동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사회에 나가기 전 자아 고민과 미



중고생 모델들이 3일 용산 CGV에서 데이터를 충전하고 제휴 상품을 무료로 받는 '데이터스테이션'을 홍보하고 있다. /SK텔레콤

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세대를 위해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0라이프 혜택의 취지를 설명했다.

원론적인 이유도 있지만, MNO 사업 한계에 달한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미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영라이프 프로그램은 10대와 20대의 특성이 다른 만큼 데이터 제공 혜택도 세분화했다. 우선 20대를 위해서는 대학교 캠퍼스를 데이터 '장(場)'으로 마련했다. SK텔레콤을 이용하고 있는 20대 대학생이 '영한동' 웹사이트에서 '0 캠퍼스'에 가입하면 캠퍼스 전용 데이터 월 1GB, 클

라우드베리 100GB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뮤직메이트 무제한 듣기 서비스(월 6900원)도 월 1500원에 이용 가능하다. 특히 0 캠퍼스 가입자 비중이 늘어나면 제공되는 전용 데이터와 클라우드 혜택이 늘어난다.

20대 고객은 T멤버십 제휴처가 아니라도 본인이 선택한 단골매장에서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이날 출시한 체크카드 '0카드'를 통해서다. 0카드를 발급 받으면 T멤버십 제휴처가 아니더라도 지정 매장에서 15% 할인이 적용된다. 5개의 디자인이 있고, 연회비는 무료다.

손인혁 PL은 "기존 전통적인 제휴 방식으로는 20대들이 진짜 원하는 혜택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련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통신사를 이용하는 20대도 참여할 수 있는 '0 순위여행'도 마련했다. 14일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된 100여명은 여행을 통해 글과 사진,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결과물을 공개할 수 있다. 특히 코치여행은 20대에게 인기가 높은 외국기업 마케팅 오영주, 제품디자이너 김충재 등 총 5명의 코치가 동참한다.

늘 데이터가 부족한 10대 중고생을 위해서는 데이터 이용 환경을 조성했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제로레이팅 제휴기

업을 늘렸다. SK텔레콤에 가입한 10대 중고생들은 ▲모두의마블, 세븐나이츠, 나이트크로니클(넷마블) ▲마음의소리, 노블레스, 2018프로야구, 브라운더스트(네오위즈) ▲스노우카메라(스노우) ▲형그리앱, 모비, 모비톡(모나와) ▲김급식, 장급식, 최급식(스콜피드) ▲뮤직메이트(SK테크엑스) 등 15개 앱을 데이터 소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오는 11월까지 전국 주요 지역에 10대 중고생을 위한 '데이터스테이션'도 300여 개 설치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한달에 데이터 총 500MB를 무료로 충전할 수 있다. 하루에 100MB씩 총 5회 가능하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SMS 인증을 받으면 충전이 끝난다. 또 데이터가 부족한 시기에 친구들과 모여 SK텔레콤에 추가데이터를 신청하면 인당 1GB씩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데이터SOS' 혜택도 제공된다.

경쟁사인 KT 역시 1020세대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와 함께 손잡고 한정판 굿즈를 제작해 제공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등 영세대 마음잡기에 나서고 있다. 이달에는 Y콜라보로 디자인 브랜드와 협업해 한정판 양말을 선보이고 GS25와는 인기 높은 삼각김밥 6종을 선정한 Y삼각김밥을 출시한다.

/김민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더 큰 세상과 소통”... 장애 학생 위한 e스포츠 축제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10주년

대회·활동 통해 정보화 능력 신장 기여

“장애학생의 정보격차 해소와 건전한 여가문화 보급을 위해 시작됐던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은 해를 거듭하면서 장애학생 최고의 축제로 자리잡았습니다.”(서장원 넷마블문화재단 대표)

4일 넷마블문화재단,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하고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이 더케이 서울 호텔에서 열렸다. 넷마블이 공동주최하고 있는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이 행사에서는 지역예선을 뚫고 올라온 본선 참가자 150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본선 진출자들은 이날부터 5일까지 양일 간 로보코딩을 비롯해 아래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등 총 16종목의



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린 '2018년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개최식.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보경진대회'와 마구마구(PC)와 모두의 마블(모바일), 펜타스톰(모바일) 등 총 11개 e스포츠 종목으로 경쟁을 펼친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페스티벌 예선 전에는 전년도보다 약 53% 증가한 3869명이 참가했다.

이 행사는 '경기를 넘어 제약과 편견 없는 페스티벌'을 모토로 한다. 장애학

생뿐 아니라 비장애학생, 부모와 교사가 동반한다. 특히 올해는 중도중복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하고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해 있는 경우) 학생도 보조공학기를 활용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볼링과 육상 종목을 신설했다. 공정한 경기를 펼치는 학생은 페어플레이상도 받을 수 있다.

가족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브릭으로

나만의 세상을 표현하는 '브릭월드', 지인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 및 즉석 인화가 가능한 '포토키오스크', 내가 꿈꾸는 직업의상을 가상으로 입어보는 '가상피팅 드레스룸', 드론 레이싱과 로봇 추구를 경험할 수 있는 'IT챌린지존', 'VR(가상 현실)·AR(증강현실) 놀이기구', '페이스페인팅', '캐릭터 솜사탕', '아케이드 게임장' 등을 통해서다.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e스포츠가 이번 아시안게임 시범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며 "이러한 e스포츠를 통해 장애학생들이 더 큰 세상과 소통하고 미래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장원 넷마블문화재단 대표는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은 공정한 대회와 다양한 IT체험 활동을 통해 e스포츠정신을 새기고, 장애학생들의 새로운 여가문화를 형성하고 정보화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올해로 이 대회를 운영한 지 10년이 된 넷마블문화재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회 진행을 통해 건전한 게임 문화 확산에도 더욱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넷마블이 사회공헌활동 고도화, 전문화를 목표로 설립한 넷마블문화재단은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을 비롯해 '게임문화체험관', '어깨동무문고' 등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민인 기자

###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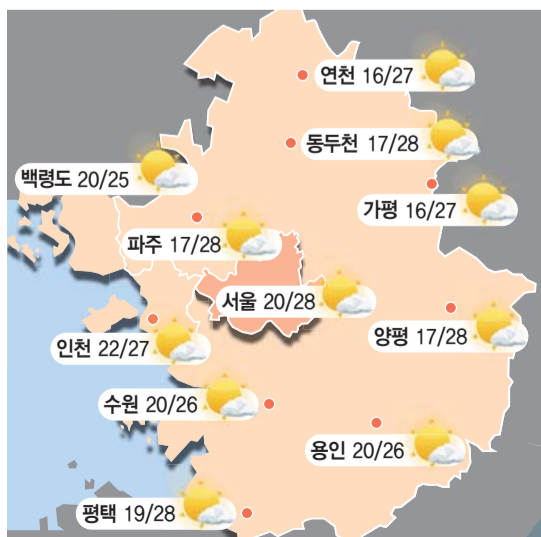
해돋이 / 05:49 | 해질 / 19:23

9월 5일(수)  
음력 : 7월 26일

수도권 날씨

28~20°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제주항공, 지방국제공항 정기노선 확대

대구~나리타 주7회 신규 취항

제주항공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제외한 지방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정기노선 확대에 집중한다.

4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다음달 28일 동계 운항기간에 대구~도쿄(나리타) 노선에 주7회(매일) 일정으로 취항한다고 추가로 발표했다. 올해 들어서만 지방공항을 출발하는 9번째 신규노선이다.

대구~도쿄 노선에 취항하게 되면 도쿄는 인천에서 주26회, 부산에서 주7회 등 모두 주40회를 운항하게 된다. 이는 주75회로 최대 운항편수를 기록중인 오사카

에 이어 단일도시로는 전체노선 중 두번째로 많은 운항편수를 기록하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지방국제공항 기점 국제선 신규취항은 우리나라 정부와 상대국 허가가 나오는 대로 잇따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항공의 집중적인 지방국제공항 기점의 국제선 확대전략은 올해 연말과 내년 상반기 중에 제주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제주항공은 51개의 국제선 중 19개 노선을 인천과 김포를 제외한 지방공

항에서 운항하게 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의 여행편의가 한층 높아지는 한편 지방공항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제주항공의 각 지방공항별 국제선은 대구국제공항이 이번에 신규 취항하는 도쿄와 베이징 등 2개, 부산 김해국제공항은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오키나와, 괌, 사이판, 타이베이, 스좌장, 엔타이, 세부, 방콕, 다낭 등 12개의 국제선을 운항하며 인천에 이은 '제2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제3의 허브로 삼은 무안국제공항에서는 오사카, 방콕, 다낭, 타이베이 등 4개, 청주국제공항에서는 오사카~괌으로 이어지는 노선 등을 운항하고 있다.

/정연우 기자 yw964@